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3일 03시 55분



목차

목차	2
여수한뉴스 - 전체	3
여수 달빛갤러리, 황주일《시·서·화 (□·□·□) 그리고 봄》전시	3

여수 달빛갤러리, 황주일《시·서·화 (詩·書·畫)》그리고 봄》전시

2024.04.05 조회수 119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강은영 연락처 061-659-5794

5월 19일까지...수묵담채 일러스트와 캘리그래피(Calligraphy : 멋글씨)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

여수시 고소동 달빛갤러리에서 내달 5월 19일까지 지역작가 황주일의 수묵담채 캘리그래피(Calligraphy : 멋글씨) 전시《시·서·화 (詩·書·畫)》그리고 봄을 개최한다.

우전(吳全) 황주일(黃周逸) 선생은 유서 깊은 남도 문인화의 맥을 묵묵히 이어온 작가로 목가적(牧歌的) 수묵담채화(水墨담채畵)로 일격(逸格)을 이룬 여수지역 화가이다.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여수시 평생학습관,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에 출강하며 교육을 통해 문인화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전시는 대중이 공감 가능한 살아있는 예술로 문인화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작업으로 마련됐다. 수묵담채 화법으로 그린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 삽화)에 한글 서예와 감성 글씨 캘리그래피(Calligraphy : 멋글씨)를 접목한 시·서·화가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의 답습(答習)을 벗어난 발상과 주제에 더해 새로운 시각 양식을 구사한 이번 전시 작품은 대중에게 현대화된 한국화를 새롭게 선보인다.

캘리그래퍼 지니(智尼) 김진희, 서예가 도정 박정명, 온길 정광섭의 참여로 작가들의 글씨만큼 개성이 더해지는 내공이 전달된다.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봄을 느끼게 하는 자연과 동물, 인물과 빌딩숲 풍경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으로 변화된 소재와 감각을 담았다”며 “과거 수양적 여기(藝氣)로 삼았던 문인화의 정신과 화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달빛갤러리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휴무,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는 무료입장이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2 여수 달빛갤러리, 황주일《시·서·화 (詩·書·畵) 그리고 불》전시.jpg (33 hit/ 360.3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국제크루즈 '르 자크 카르티에호' 여수에 기항

다음글

여수시립도서관,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eosu Web Contents

